

#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한덕수 대행, 오늘 분수령

민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 요구  
불발시 오늘 탄핵안 발의·내일 본회의 보고...“내란 종결 협조”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여부가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시기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 작성을 마쳤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사유는 5가지로 정리했다”며 “국무총리로서의 사유가 3가

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2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로서 탄핵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점,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기 이전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열흘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명시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언론 공지까지 마친 뒤, 접수가 예정됐던 현장에 모인 취재진을 상대로 탄핵안 제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의총 때에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모든 의원의 의지가 강했으나, 지도부가 그 이후 마지막 판단을 하면서 한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차이에 불과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26일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 동조가 되고, 이를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땅에 평화”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예배가 열리고 있다. <순복음교회 제공>

## 학계 “대통령 대행 탄핵 정족수, 151석으로 족해”

국힘·민주, 가결 정족수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 정족수를 채운다는 견해가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무총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7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 논리 일관성을 지적한 학자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탄핵 대상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로 족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

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만큼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으며,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가능하다는 국회 보고서 등도 있다.

또 국무총리로서 직무수행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일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가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권성동 “한 대행, 탄핵돼도 직무 수행해야”

“탄핵 요건, 대통령과 동일... ‘탄핵 반대’ 당론 채택 확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하는 자가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도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에서 경쟁자가 생겨 이 대표가 불안하다”며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 두 달 안에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韓 탄핵 변수에... 국정협의체 출범 차질

실무협 오늘 첫 회의 불투명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안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가 변

수로 발생하면서 당장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늦어도 오늘까진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내일로 예정됐던 협의체 출범 등 향후 일정도 차례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실무 단계에서는

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 협의체 개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권역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이에 따른 지도부 개편이 진행 중인 점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제 등)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됐다”며 “내일 국정안정 협의체 첫발을 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